기획 — 장유진, 전종현
표지 사진 — 부아부세 제공

배움에는 끝이 없다 DESIGN WORKSHOPS YOU SHOULD KNOW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워크숍, 네덜란드의 그래픽 디자인 섬머 스쿨 오픈셋과 프랑스의 부아부세 디자인 건축 워크숍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전한다.

부아부셰 디자인 건축 워크숍
아름다운 프랑스 남부 전원에서 디자인적 영감을 얻는 즐거운 경험

취재 — 정유진
도움 — 김도현
사진 — 아이비 챠이(IVY TZAI), 부아부셰 제공

부아부셰 성
THE CHATEAU
—
부아부셰의 상징 같은 공간으로 19세기에 지어졌다. 현재는 부아부셰 워크숍 대표 페게작의 컬렉션을 전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누구에게나 도망치고 싶은 순간은 이따금 찾아온다. 더군다나 무언가 창작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이들이라면 풍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아이디어 개발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은 이들이라면 프랑스 부아부셰 디자인 건축 워크숍(이하 부아부셰 워크숍)에 주목해 보자.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전(前) 관장인 알렉산더 폰 페게작이 시작하여,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부아부셰 워크숍은 오늘날 가장 실험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워크숍으로 인정받고 있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프랑스 남서부 부아부셰 지역은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건축된 성과 별관, 농장과 물레방앗간 등이 그림 같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곳이다. 총 3개월에 걸쳐 1주일 혹은 10일 단위의 강좌를 매주 선보이는데 오늘날 가장 주목받고 있는 디자이너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좌 하나씩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3CO' 즉, 커뮤니티(Community), 협업(Collaboration), 협동(Cooperation)을 주제로 하여 알바로 시자(Alvaro Siza), 스튜디오 스와인(Studio Swine), 미셔'트랙슬러(mischer'traxler), 프렘 크리슈나머시(Prem rishnamurthy) 등의 튜터와 함께하고 있다.

이번 스페셜 리포트 2부에서는 알렉산더 폰 페게작 및 2015년 부아부셰 워크숍에 튜터로 참여한 3명의 이야기를 통해 부아부셰 워크숍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부아부셰 공간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부아부셰 디자인 건축 워크숍
BOISBUCHET DESIGN+ARCHITECTURE WORKSHOPS
BOISBUCHET.ORG
—
일시: 2015년 6월 14일-9월 19일
장소: 프랑스 부아부셰
—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전(前) 관장인 알렉산더 폰 페게작(ALEXANDER VON VEGESACK)이 시작한 하계 워크숍으로 올해 25주년을 맞았다. 약 3개월간 1주일에서 10일 단위의 강좌를 매주 선보이는 방식이며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참가자 개인이 디자인 과정과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 그 자체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나무 파빌리온
THE BAMBOO PAVILION
—
2001년 콜롬비아 건축가 시몬 벨레스(SIMÓN VELÉZ)가 디자인한 공간으로 현재는 호수에서 수영을 마친 참가자들의 휴식공간과 카누 보관함으로 이용되고 있다.

돔 파빌리온
THE SMALL AND BIG DOME
—
독일 건축가 외르그 실라이히(JÖRG SCHILAICH)가 디자인한 실험적인 건물이다. 큰 돔은 스틸 구조물로, 작은 돔은 대나무 구조물로 만들었다.

레 마네쥐
LE MANÈGE
—
마르쿠스 하인스도르프(MARKUS HEINSDORFF)가 중국의 엑스포에서 선보인 작품을 부아부셰에 재설치했다. 대나무와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이 건물에는 150명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다.

알렉산더 폰 페게작
ALEXANDER VON VEGESACK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전(前) 관장으로, 현재 부아부셰 워크숍 대표를 맡고 있다.

워크숍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문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나라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겪었어요. 그 곳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부아부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상에는 '워크숍'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하는 이벤트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공간은 대부분 회색 도심 속의 건물 내부죠. 저는 고리타분하게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은 원치 않습니다. 생각의 진행이 막혔을 때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하이킹과 요가를 하며 정신적인 여유를 즐기면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걸 바라요. 창작이란 때로는 참신한 공간에서 더 풍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해 워크숍의 주제는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그 해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이슈를 워크숍에 접목합니다. 올해 주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정했습니다. 몇 년 전 마르셀로 로젠바움(Marcelo Rosenbaum)이 진행한 워크숍에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가 자신의 생각과 문화를 천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한 후 이를 모아 기모노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현재 그 작품은 건물에 전시중인데요. 작품을 보다가 문득 다양한 생각이 모여 하나의 문화 또는 디자인을 만든다는 정신이 떠올라서 올해의 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탁자로!
À TABLE!

워크숍 25주년을 맞아 부아부셰 지역 안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알렉산더 폰 페게작이 소유한 대량생산 시대의 기념비적인 컬렉션 30점을 부아부셰 성에서 선보이는 <아 따블레!> 전시회다. 디자인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몸에 닿는 의자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반면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테이블에는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토넷 형제부터 르 코르뷔지에, 장 프루베, 알바 알토, 찰스&임스, 론 아라드 책상까지 다양한 종류의 테이블을 만나볼 수 있는데, 전시회 기간 동안 주변의 레스토랑과 연계해 작은 에피타이져 파티도 진행한다. 각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는 각자 테이블을 정해 거기에서 받은 영감으로 만든 음식을 전시회 관람자에게 대접한다.

튜터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제적 명성이 있는지', '어떤 재료를 다루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는지'인데요. 부아부셰 워크숍은 국제적인 행사이기에 디자이너의 명성은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곳의 특별한 작가들을 발굴하는 것에도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들은 유명하진 않지만 독특한 재료를 다루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재료를 부각시키며 참가자에게 우리가 발굴한 디자이너를 어필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튜터가 일반인 강의 경험을 갖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디자이너는 너무도 개성이 강한 존재이고 대부분 작은 스튜디오 형태로 작업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룹을 진두지휘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에이터의 한 사람으로서 튜터가 워크숍에서 어떤 점을 얻어가길 바라시나요?
그들 또한 참가자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그룹을 이끌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프로 디자이너'라는 위치를 잠시 버린 채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막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친구들에게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워크숍 참가자에게 바라는 점은 어떤 건가요?
첫째도, 둘째도 실수를 많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정규 교육 안에서 실수와 실패는 학점과 귀결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현실에서 실패를 용납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실수는 다음 성공의 자양분입니다.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여기서만큼은 버리고 자유롭게 실험하며 작업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워크숍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이유도 실패가 용납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서 다른 문화, 다른 관점의 인연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아부세 워크숍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자연 한가운데 워크숍 작업 공간이 존재하는 건 저희의 엄청난 경쟁력이죠. 워크숍 진행 기간 동안 우리가 기획한 전시는 고성에서 전시됩니다. 또한 한 주에 3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죠. 다시 말해 참가자들은 하나 이상의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런 면모가 저희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참가자 한 명이 엽서로 감사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참가했던 사람인데 그녀의 인생이 워크숍 때문에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굉장한 보람을 느꼈죠. 몇 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부아부셰는 타이완에서 온 참가자가 많은 편인데 그들 대부분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죠. 굉장히 작은 체구의 참가자 한명이 묵묵히 워크숍 결과물을 만들었고 결과 발표 날 그녀의 '소리 나는 물건'을 다양한 친구에게 건네 음악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석연주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그 때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 서로가 마음이 맞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부아부셰 워크숍이 올해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우리 목표는 참 소박합니다. 내년에도 참가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참가들이 더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온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제 고민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면서 고민을 해결하고,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교류를 유지하고 그들의 작업에 도움이 되는 일.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알바로 시자
ALVARO SIZA

1933년생인 알바로 시자는 포르투갈의 살아있는 건축가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에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그는 건축가 카를로스 카스타니이라(CARLOS CASTANHEIRA)와 팀을 구성해 부아부셰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야외 모닥불을 만들었다.

올해 진행한 워크숍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부아부셰에 2개의 모닥불(fireplace)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 모닥불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의를 참가자에게 인지시키며 함께 진행했습니다. 우선 위치를 정하고 참가자와 함께 디자인 및 크기에 관해 회의를 한 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참가자 규모가 큰 편이라 두 그룹으로 나눴고 한 그룹은 호숫가에, 다른 그룹은 참가자 숙소 근처에 설치했는데요. '호수팀'의 작업을 먼저 끝났고 마지막엔 전원이 '말팀(말들이 뛰어놀았기에 '말팀'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죠)'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주제 선정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입장이라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고민을 알고 있는 주최 측에서 필요한 건물이 무엇인지 먼저 제게 말해줬습니다. 참가자들이 서로 대화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알고 제가 '모닥불'을 제안하게 되었죠.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어떤 것을 얻어가길 바랐나요?

나이, 국적, 심지어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통의 관심 분야로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런 고난을 이겨낸 후 얻어낸 결과물로 희열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꼽아본다면요?

참가자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 국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죠. 다만 날씨가 안 따라준 게 못내 아쉽네요. 5일간의 워크숍 기간에 이틀 동안 비가 오는 바람에 설치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이 난감했습니다. 초반에 비가 오다 후반부터는 날씨가 좋아져 다행히 일에 진척이 있었어요.

워크숍만이 가지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워크숍에서 건축학도는 기존처럼 책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책이 주지 않는 지식을 배우는 기회를 가집니다. 짧은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속성으로 건물을 완성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가는 건물을 완성하는 기간 동안 모든 문제점을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지휘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건축 법규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스스로 원하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곤 하죠. 이에 비해 부아부셰에서는 조금이나마 법규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요?

부아부셰는 올해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기념비적인 순간에 강의를 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지도상에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를 선정했는데요. 직접 가서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1m 정도의 구덩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곧 진행팀이 차를 불러 콘크리트로 채워 넣더라고요. 어쩌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진행팀의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바로 시자 워크숍 참가자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5학년 이재호입니다. 5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1년간 휴학한 후 이번 학기에 마지막 학기 복학을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부아부셰 워크숍을 알게 되셨나요?

—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한 친구가 워크숍에 참여해서 휴학 중이던 제게 추천을 해주었어요.

여러 강의 중에서 알바로 시자의 워크숍을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흥미로운 워크숍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건축학부라 건축가 알바로 시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동경했기 때문에 결국 시자의 워크숍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아부셰 워크숍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단연 지리적 특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푸아티에라는 마을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야 부아부셰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친다면 읍면리동 중 동 정도에 속할 것 같네요. 여행지가 아닌 다른 나라의 시골에 가는 건 무척 매력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LTE가 터지는 데 여기에서는 데이터 로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G, 혹은 G 표시까지 나타나더군요. 물론 숙소에서는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했지만 말이죠. 그만큼 아직 세상의 손에 닿지 않은 자연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있어 마치 피터팬의 네버랜드를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많은 별을 본 이후로는 별을 볼 일이 없었는데 15년 만에 밤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많은 별들을 본 기억은 절대로 잊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특성상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이끄는 워크숍이지만 순수 미술을 전공하거나 인테리어 디자인, 금속 디자인 등 여러 분야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해 같이 어울리고 문화를 나눈 점도 매력적이었어요.

워크숍 기간 중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워크숍 기간 동안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며 다시 이곳을 떠나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 제일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좋은 점은 너무 많죠.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건축이라는 공통된 학문으로 교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 장벽이나 나이, 성별을 떠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공유하는 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부아부셰 워크숍에 참가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겐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반복된 일상에 지친 사람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의 최종 작업물

하이메 아욘
JAIME HAYON

스페인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로, 1974년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그곳과 파리에서 산업디자인을 공부했다. 이탈리아 파브리카(FABRICA)의 디자인 부서를 맡았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행한 워크숍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나무를 이용해 어린이용 장난감을 디자인하는 워크숍입니다.
참가자의 작품은 제 아들 두 명이 심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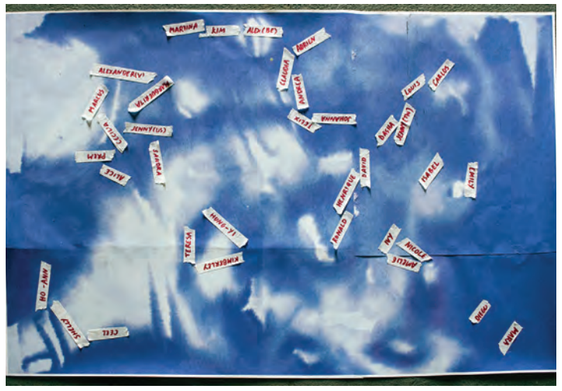
주제 선정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가자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사용 방법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입장과 이용하는 사람 간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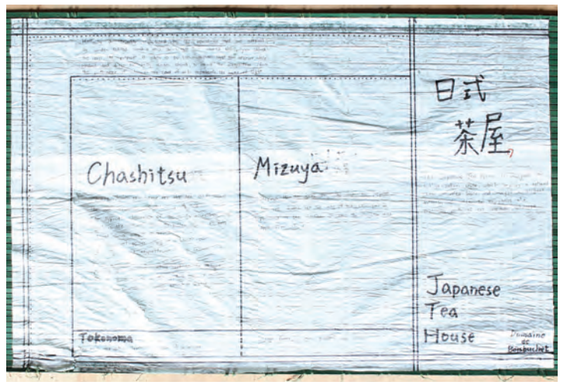
부아부셰에 자주 오셨는데 올해는 어떠셨나요?
올해는 제 자녀와 함께 워크숍을 경험하고 즐기는 시간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참가자의 작품 몰입도는 훌륭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아이의 눈높이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저도 새롭게 배운 게 있습니다. 제 아들들이 제 작업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 (웃음) 아들들을 위해 만든 작업이 있었는데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작품을 즐기는 걸 보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아부셰 워크숍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디자인 워크숍에서도 디자인을 즐길 순 있습니다. 잠시나마 현실에서 멀어져 오로지 디자인만 바라보고 작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대개 결과물을 중시합니다. 어쩌면 결과물이 워크숍 비용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아부셰 워크숍은 다릅니다. 여기는 즐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죠. 워크숍을 겪으면서 바뀐 자신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형상이 아닌 마음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것이야말로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자유와 디자인 이외에 사람과의 만남과 여유를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부아부셰 워크숍에 참여한다는 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배우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의미랄까요. 저에게 이곳은 마음을 놓는 곳입니다. 동시에 제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현재 어느 정도 제 위치가 올라갔기에 사람들이 제게 바라는 기대치도 어느 때보다 높기 마련입니다. 본의 아니게 현재의 위치를 만족하고 즐기는 순간이 찾아왔지만 부아부셰에만 오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영어를 못하는 참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저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올해 워크숍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워크숍에서 나온 결과물을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사용 방법에 참가자들이 모두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재미를 느꼈죠.





참가자들의 최종 작업물

올해 진행한 워크숍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주제는 '기호의 사회적 일생(The Social Life of Signs)'이었어요. 제 작업은 대부분 특정 공간을 탐험하고 그 상황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물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죠. 전 이번 워크숍에서 그런 걸 깨고 싶었어요. 게다가 이전에 부아부셰를 방문했을 때 이곳의 사인 시스템이 진보적이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제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부아부셰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러하듯 저도 어떠한 형태로 결과물을 남기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워크숍 디렉터가 제게 다가와서 말하길 "만일 부아부셰를 위한 표식물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더군요. 바로 그때부터 제가 압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방향을 다시 잡고 부아부셰가 25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기념비적인 순간을 참가자와 찾아보며 그 순간을 조명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이번 워크숍에서 중시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형태'의 결과물이 아닌 이곳에 관한 역사를 참가자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이곳의 순간도 25년의 노하우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모든 건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참가자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부아부셰 워크숍은 생각에 대한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형태만이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곳만의 자유라고 봅니다.

올해 네덜란드의 오픈셋 프로그램에도 튜터로 참여하셨습니다. 부아부셰와 오픈셋을 비교해주신다면요.
일단 두 워크숍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각자 너무나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일단 오픈셋은 조금 더 그래픽 디자인과 밀접하고 약간은 권위적인 구조로 진행돼요. 왜냐면 '형태에 관한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 부아부셰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이 진행되죠. 마음을 울리는 작업을 진행해요. 결과물이 눈에 확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그런 형태의 작업에 집중하죠. 간단히 말해 오픈셋이 결과를 중시한다면 부아부셰는 경험을 중시해요.

어떤 사람에게 부아부셰 워크숍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마음이 지친 친구들이요.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을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잠시나마 휴가를 통해 전쟁을 잊는 시간을 갖죠. 하지만 다시 전쟁터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필요한 게 사실이죠. 이곳 부아부셰에서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여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부아부셰로부터 워크숍 튜터 제의를 받은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지난 25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부아부셰는 디자인 역사에 획을 그었던 작가들이 방문하며 역사를 만들어나간 곳입니다. 이곳에 제 이름이 새겨진다는 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아보신다면요.
우리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이곳의 진정한 가치는 공간이 아닌 사람이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곳에 전통을 계승할 사람이 부재하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곳의 역사를 어떻게 다음 친구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가에 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설립자와 디렉터 이외에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며 이곳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복원해 나갔어요. 어떤 건물이 만들어진 이유, 이곳에 이 공간을 조성한 이유, 왜 이런 스케줄로 워크숍이 진행되는지 등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을 인터뷰와 퍼포먼스, 표식물로 표현해나갔는데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었지만 동시에 슬픈 이야기도 있었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부아부셰를 완성한다는 이야기로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때 이곳 일을 운영하는 친구가 제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고맙다고, 이곳에서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었다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프렘 크리슈나머시
PREM KRISHNAMURTHY

—

프렘 크리슈나머시는 디자인 스튜디오 프로젝트 프로젝트(PROJECT PROJECTS)의 공동 설립자로 뉴욕에서 디자이너 겸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에밀리 스미스
EMILY SMITH

—

에밀리 스미스는 베를린에서 디자이너 겸 교육가, 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감정적이고 시스템적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많다.